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장에 '김재록 건축사' 당선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에 김재록 건축사가 당선됐다. 사진은 당선증과 꽃다발을 안은 김재록 당선인.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의무가입 이후 민간대가 기준 마련 등 회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제고를 위한 책무를 맡을 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에 김재록 건축사(제29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가 당선됐다. 김재록 당선인은 1월 17일부터 18

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제34대 대한건축사협회장 선거에서 개표 집계 결과, 유효득표 13,950표 중 5,755표(41.25%)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석정훈 후보는 5,316표(38.11%), 정명철 후보는 2,879표(20.64%)를 득표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해 선거인 수 16,137명 중 13,950명이 투표해 사상 최고 기록인 86.45%를 달성했다.

김재록 당선인은 조총기 선거관리 위원장에게서 당선증을 받은 후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주신 전국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선거에 나선 두 분 후보께도 박수를 보낸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재록 당선인은 “조작은 선거를 통해 긴장하고 변화하며, 발전한다”며 “선거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은 가슴에 묻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새로운 시대를 위해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5,755표 득표·득표율 41.25%

김재록 당선인 “새로운 시대 위해 모두 함께” 강조

위기 속 화합통해 동반성장 시사

의무가입 기반 위에 민간 대가기준 마련

건축사법 개정 반드시 완수 의지

민음에 보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거 유세 기간, 신선한 변화에 함께 해주길 강조했던 김재록 당선인은 회원들이 바라고 제안하는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며 “건축사의 자존심을 살리고, 회원의 권익은 키우고 높이며, 업역은 넓히고 지켜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임기 동안 ▲민간대가 기준 마련 건축사법 개정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확대 및 신고대상 건

축물 감리제도 도입 ▲1인 건축사 업역확대 및 경쟁력 강화 ▲건축 설계 공모 공정성 확립 ▲건축사의 과도한 별치조항 개선 등을 공약했다.

선거기간 중 김재록 당선인이 공개한 공약사항에 따르면 앞선 주요과제 외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과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제도·연금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김재록 당선인은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경영으로 협회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대가 건축사법 개정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시·도 및 지



대한건축사협회 직선제 투표율
자료=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역건축사회 활성화로 회원의 접근성과 참여를 독려하겠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존중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민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개정 건축사법은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으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토부·기재부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박관희 기자

ISSUE - '국내 주요 건축프로젝트, 외국사 몰아주기' 이대로 괜찮나

'수십 억 설계비', 외국사 주머니 속으로...국내 건축설계산업 발전 본질 숙고해 대안 마련하고, 열악한 환경 바로잡아야

민간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해외 아키텍트 지명 설계공모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국내 유수 대학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서초구의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성수동의 삼표 레미콘 공장부지 개발 등은 해

외 아키텍트의 설계안으로 진행이 결정됐다.

기상청 국제기상센터 국제지명설계 공모, 대구 수성못 수상공원장 및 수성 브리지 조성 설계공모 등도 국제 지명설계공모로 치러진다. 지명설계

공모는 발주처가 지명한 건축사만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국내 초대형 건축프로젝트를 위시한 주요 건축물들을 상대로 정부·지자체·민간 건축주들이 마케팅 효과를 노려 외국 건축사에게 설계 작업을

맡기다 보니 최근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국내 건축사 작품에 대해 재공모를 요청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 광주 미술계는 지난 1월 9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 재공모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유명 건축사에

의한 지명 공모를 통해 건축물 자체가 광주의 랜드마크이자 세계적 문화명소가 되어야 한다”며 재공모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은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지난해 12월 당선작을 선정해 왔다. > 2면 계속

혁신적 방재형 주차장 바닥 마감 시스템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방지

Dia QN-1000 System : 세라믹계 수용성 준불연 수지 / 바닥마감재



특허증



준불연 인증



준불연성

- 화재로 인한 화염전파 방지효과 탁월 :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효과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증



물리적 성능

- 기존 용제형 제품 대비 탁월한 물리적 성능 발현



수용성 바인더와 무기나노물의 점진적 커플링 응화 반응

- 시간 경과에 따른 획기적인 물리적 성능 향상
- 기존 수성 재료의 태생적인 물리적 성능의 한계를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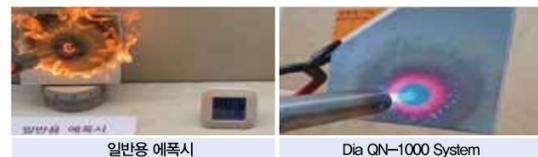
환경 친화성

- 물을 용제로 사용 : 희석제(신너) 미사용
- 극 저취형 : 시공 중에 냄새 없음

적용부위



비교시험



(주)피엠씨

www.pmc-eng.co.kr



(주)다이아몬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35-1, 부성빌딩 3층 T.042-585-6619 F.585-2050 http://www.diacoat.co.kr/

▶1면에서 계속



광주미술계 원로 중진화가와 역대 광주시립미술관장, 역대 광주미술협회장들이 1월 9일 광주 동구 예술의거리 관전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비엔날레 새 전시관 설계 국제공모 당선작 무효와 세계적인 건축사를 통한 지명 재공모'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인

민간건축의 경우 사적 재산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장 기능에 맡긴다 하더라도 공공성을 우선에 둬야 할 공공건축까지 해외 아키텍트의 명성

에 기대어 맹목적으로 설계업무를 맡아주는 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건축디자인을 해외에 의존하는 절름발이 상태가 계속된다

국내 프로젝트, 해외 아키텍트 지명설계공모 잇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설계공모 당선작 철회 요청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설계산업 전반 저가수주 횡행 속 국내 건축사 설계업무,

정당한 평가 더불어 건축환경 개선해 저변 만들어나가야

면, 국내 업체들은 하도급 실시설계 업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 식까지 고조되고 있다. 이러면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P 건축사는 “주요 건축 프로젝트 설계를 외국이 독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건축사가 세계적인 아키텍트로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건축설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축사업계 관계자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문제의 본질을 숙고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민간 대가기준 마련과 같은 적절한 보상체계와 더불어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각종 심의, 인허가 절차를 비롯한 설계환경을 옹호하는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H 건축사는 “유명 외국 건축사의 설계비는 건축비의 절반인데, 국내 건축사는 최저가에 머물러 있어 한숨만 내쉬 뿐이다”며 “세계적인 건축사가 배출되는 데에는 그에 맞는 뿌리 깊은 이유가 있는 법이다. 정부에서 K-건축의 세계화를 도모하기에 앞서 국내 설계산업 열악한 환경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고 강조했다.

장영호 기자

ZOOM IN - 1인 가구 주거난 해법으로 부상 '임대형 기숙사' 살펴보기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보다 주차장 등 경쟁력 우위... 소방규제상 작은 땅 건축할 수 없어, 규제완화 필요 제기

작년 3월 도입됐으나, 아직 1호 사업 나오지 않아

고금리 상황서 금융지원 중요성 커져

정부 금융지원 구체적인 내용, 시행시기는 미정



2016년 들어선 영국의 세계 최대 셰어하우스로 알려진 더 컬렉티브 올드오크는 1인 가구 중심의 코리빙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사진=올드오크 누리집

▶ 건축법 시행령 별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개정안	
기숙사	일반기숙사
운용주체	학교 또는 공장 사용자: 학생 또는 근로자
공동기숙사(신설)	운영주체: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

자료=국토교통부

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포·시행했다.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공유주거(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총 2391만 4851가구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993만5600가구로 41.5%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러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해 작년 3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임대형 기숙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해 9월에는 민간임대주택의 공

'공유주거'란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뉴욕, 런던, 파리 등 집값이 비싼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보편적 주거 형태로 활성화돼 있다.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또는 공장에서만 운영 가능했지만,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 민간임대사업자도

임대형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건축법상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했다.

임대형기숙사의 장점은 무엇보다 연면적·세대수 제한이 없고, 주차기준이 대폭 완화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이다. 작년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해 세제·기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형기숙사 건설 시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용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대형기숙사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이라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6m×12m)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땅에서는 임대형기숙사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지가 최소 495㎡ 이상은 되어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주차기준이 대폭 완화됐다고는 하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시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규제완화 명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임대형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 기숙사 카테고리 중 하나로 추가된 것일 뿐 주거, 준주거, 3종 주거지역에서 해당 용도에 따라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고, 임대형 기숙사 전체 세대 중 50% 이상 취사가 가능하다 보니 화재 위험성이

▶ 1인 가구 주거시설 유형별 비교

건축법에 따른 용도		연면적 제한	1실당 최소 면적	주차대수 (서울시 조례 기준)	개별취사 가능여부	전입 신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660㎡ 이하	14㎡	150㎡당 1대	x	○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주거용)	없음	14㎡	가구당 0.5대	○	○
	임대형 기숙사	없음	개인공간 10㎡, 개인공용공간 총 14㎡	200㎡당 1대	50% 이내 가능	○
제2종 근생	고시원	495㎡ 미만	전용 (화장실 포함) 9㎡	134㎡당 1대	x	○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없음	14㎡	134㎡당 1대	○	x

자료=국토교통부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주차 또는 주차금지면적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임대형 기숙사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제한 없음 주차 대수 현저하게 적음 세대수 제한 없음 건축허가 대상(사업계획승인대상 아님)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 고려 중 50% 이내 개인 취사시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실 이상만 가능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필요(주차장 불가능한 편도 2차선 도로 제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후 운영 가능 분양 불가

더 높다 판단돼 임대형 기숙사만 소방차 전용도로 예외 적용을 하기에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금융 지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형 기숙사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가까이 됐지만, 1호 사업이 나오지 않은 까닭에 국토부도 금융 등 여러 지원책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형 기숙

사 신규 건설 시 기금 출자와 융자 등의 지원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HUG 측은 "공사비를 현실화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아직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 안 돼 정부와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장영호 기자

FOCUS -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인 등급 제고 해법은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인 등급, 학사 취업 때 '초급'에도 미달... '역량지수' 제고 위한 방안 필요

건설기술인 등급, 국가기술자격자 위주 재편으로

학사 건축사사무소 취업 시 20점으로 초급 35점 충족 못해

전문성 강화, 활용도 높은 자격 신설해 승급 유도하는 것도 방안

국가기술자격자 위주로 개편된 만큼

'설계·BIM·감리 기사' 신설 필요하다 의견도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등급체계 상 타 분야는 '고급'이 많은 데 반해, 건축사사무소는 초급조차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급이 낮다 보니 대가를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인들이 건설기술인 등급 체계상 타 분야 대비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가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A 건축사는 "과거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하에서는 대학 졸업 후 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면, 초급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은 5년제 건축대학을 나와 취업을 해도 초급조차 되지 않는다"며 "건축사사무소는 대부분 건축사 자격을 따러 하다 보니 기사 자격조차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등급이 타 분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실 과거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축사예비시험 땀 시험 면

제를 받을 수 있었다.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건축기사 자격 30점, 대학 졸업 학사일 경우 20점을 받아 도합 50점으로 초급 기준인 35점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지금은 기사 자격 취득이 드물다 보니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사로 학력점수 20점, 자격점수는 기타로 분류돼 10점을 받아 초급인정 기준 35점에서 5점이 모자라 기술경력으로 만 2년 또는 최초교육을 이수해 교육가점 최대 5점을 획득해야 초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건설기술인 등급을 살펴보면,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등으로 구분한다. 이때 등급은 역량지수에 따라 산정하는데,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5점 이내)'를 총합산해 등급을 매긴다.

건설기술인 등급 연혁을 살펴보면, 과거 2006년 학·경력기술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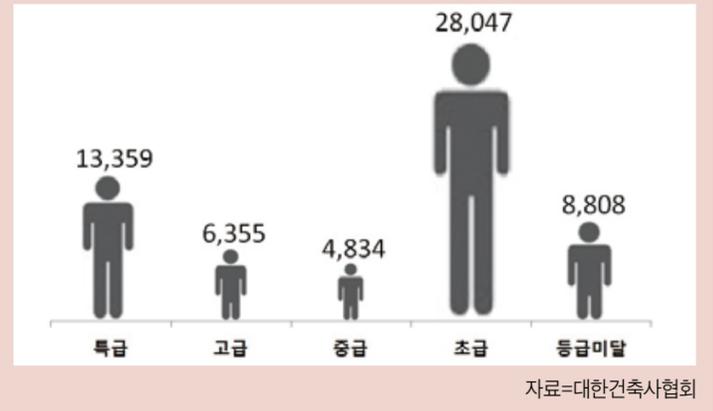
정 제도가 폐지된 이후, 건설기술인을 국가기술자격자 위주의 4단계 등급체제로 평가했다. 그러다 현장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건설기술인들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누적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책임감리 제도를 건설사업관리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건설기술인을 학력(20%)과 자격(40%), 그리고 경력(40%)으로 종합평가하는 역량지수 등급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자격지수의 경우엔 건축사와 기술사가 40점, 기사와 기능장·산업안전지도사 등이 30점의 배점이 적용된다. 경력지수는 건설기술인이 실제 건설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와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기술인 등급체계가 국가기술자격자 위주로 재편돼 대가산정이 기술등급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건축사업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이 그래서 힘을 얻는다. 현재 건축기사 취득자에 대해 인정하던 예비시험 면제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할 만한 유인책이 없어진 상황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B 건축사는 "최근 정부 발표를 통해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이 발

▶ 건설기술인 건축분야 등급별 현황(단위 : 명)



▶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구분

기술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7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75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5점 이상~75점 미만
중급	55점 이상~65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55점 이상~65점 미만
초급	35점 이상~55점 미만	40점 이상~60점 미만	35점 이상~55점 미만

자료=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자격지수 배점

자격종목	배 점
건축사 / 기술사	40
기사/기능장 / 산업안전지도사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타	10

자료=대한건축사협회

표된 것처럼, 건축설계기사, BIM 기사, 감리기사와 같이 건축사사무소 업무 활용도가 높은 자격제도를 신설해 역량지수 등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박관희 기자

건축 질의회신 Talk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 시, 국방부장관 등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	23.12.21.

질의 요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의 판단이 없더라도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음.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적용 가능한 지

법 조항	하위 조항	회신일
「건축법」 제84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9. 5.24.

질의 요지 지붕이 경사진 다락의 층고 산정방법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옥상부분(다락 및 계단탑이 일체화된 경우)이 층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붕이 경사진 다락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를 층고로 하여야 하며, 층고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음. 또한,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계단탑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는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단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여야 함.

법인 2,542개 중 약 5.4% 비건축사 대표, 법인 시정 요청 후 미이행 시 징계 및 고발조치

비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대표 등재 실태 파악 결과 나와

건축사법상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때 대표자 건축사여야

비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사무소 실태 파악을 위해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법인등기 부등본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비건축사 대표 등재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본격적

건축사사무소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데이터의 교차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협회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선의의 피해를 막고,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인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1월 23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대한 확인 및 시정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르면 내

비건축사 대표

등재 건축사사무소에

2회 이상 확인 및 시정요청

미시정 시 징계 및 고발조치

달부터 관련 법인 건축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급한 2,542건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약 5.4% 가량이 비건축사 대표 등재 법인 건

현재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신고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확인 및 시정요청은 총 2회에 걸쳐 관련 건축사사무소에 통

보될 예정이다"면서 "시정 요청 후에도 미시정 건축사사무소가 있다면 예고한 대로 징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관희 기자

사설

이래서 협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학 1학년 '건축학개론' 과목에서 건축사의 자부심이 강조되며, 모든 건축 과정에서 건축사가 업무를 주도하고 결정하며, 건축사의 승인이 있어야 업무가 진행될 수 있음을 배운다. 그만큼 건축이라는 학문이 대단하고 가치 있으며 건축사로서 성장하기 위해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많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지금 건축사가 겪고 있는 업무환경은 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건축의 모든 과정 중에서 왜 건축사가 항상 대부분의 책임을 지고 적은 대가를 받으며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있는가. 건축 관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왜 건축사가 항상 의역할을 하는 것일까. 책임은 크고 대가는 적은데, 경기가 어려워지니 그 수준이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로 다다르고 있다 생각한다.

개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을까. 각종 SNS를 통해 현재 상황을 성토했다. 여러 글들이 관심을 받고 공유되기도 하며,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많은 건축사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소수가 모여서 노력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건축사의 일이 아닌 부분은 당당히 거절하며,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건축사가 당장의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수긍하며 저가로라도 수주하고, 추가업무를 진행하며,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따르고 있다.

법이 신설되거나 개정될 때 전문

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초래되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전문분야는 법 개정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며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가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지만,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수많은 법과 제도가 건축사들과 협의하거나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한 채 신설되고 개정된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또 법이 바뀌겠구나 생각한다. 건축사 업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 대학의 첫 수업에서 들었던 것처럼, 해외에서 Architect가 가지는 위상만큼 국내에서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 사회적 통념이 개선되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을 통해 개업한 모든 건축사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다. 회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확실히 하고 현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수집하는 일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원의 의견 개진이 타당하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판단되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기준에도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회원들은 더 빠르고 강력한 개선을 원한다. 개인이 외치는 소리는 어쩔 수 없이 작다. 어떠한 구호를 외칠지, 어떻게 목소리를 모을지, 함께 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시론

미래의 새로운 대한건축사협회에 대한 구상



여형중 건축사
와이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의무가입의 시대가 시작됐다. 의무가입 시행 이후 나와 입장이 비슷한 주변 건축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법제화가 됐으니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말을 듣기 일쑤다. 협회에서 나름 비전을 세우고 열심히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나조차도 의무가입으로 인해 좋아지는 면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변화가 생기거나 할 테지만 앞으로도 별반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건축사협회는 법률상담, 자문, 분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축사 업무를 지원한다. 하지만 협회를 통해 이리저리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 전까지도 잘 알지 못했다. 건축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도, 협회에 가입했을 때도, 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건축사 업무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지 못했다. 또 협회 활동에 내가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도 몰랐다. 개인적 무관심도 있었겠지만, 돌아켜보면 협회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안내를 받은 기억도 없었다.

보통 사람들은 이플 때 의사를 찾고, 곤란한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부동산 하면 공인중개사를 떠올린다. 그렇다면 집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건축사를 떠올릴까? 이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는 엄청난 일이지만, 이는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필수 과제라 생각한다.

건축사협회라면 궁극적으로 건축사들을 한데 모아주는 창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협회가 건축사의 개별적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협회의 역할이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협회가 건축사의 창구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협회가 건축사와 건축주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주면 어떨까 싶었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만날 기회가 필요하다. 건축주도 좋은 건축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 실력 있는 건축사가 누구인지, 속거나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지만 쉽사리 만날 수가 없다. 여기에 건축사협회가 연결고리가 된다면 건축주는 신뢰할 수 있는 건축사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 품질을 보장 받고, 이에 걸맞은 가격까지 알 수 있도록 한다면 건축사를 만나고 싶은 건축주는 당연 협회를 찾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건축사도 협회로 모여들 것이다. 물론 금전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으니 누구나 납득할 만큼 투명한 정화기능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건축과 관련된 궁금증은 누구든지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한 컨설팅이나, 단열 및 방수 등 디테일에 관한 설계기준, 주로 생기는 하자의 종류와 처리 방법 등 건축주뿐만 아니라 실무를 하는 건축사와 시공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를 협회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건축 관련 정보를 협회를 통해 얻을 수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질 것이다.

건축사협회는 수십 년간 쌓아온 건축에 대한 노하우와 실력 있는 건축사들의 지식이 모여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축적인 조직이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설계 관련 경력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계승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해있다. 협회에서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모아 한국의 건축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차츰 누적과 개선을 이어간다면 대한민국 건축의 중심에 서서 우리 기술 수준을 한껏 높여줄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 사회 전반에서 건축사를 필요로 하고, 건축사가 대중의 공감을 받는, 보다 공익적인 존재가 되길 바란다. 좋은 건물을 찾고자 할 때 혹은 집에 물이 샌다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등 건축과 관련된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이 건축사를 떠올렸으면 한다. 건축사협회가 대중의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헌도를 쌓아가며 건축사의 필요성을 넓혀간다면 자연스럽게 건축사의 역할과 입지가 높아질 것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축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주) 아키소프트는 GRAPHISOFT 한국 공식 총판입니다. | hello@archisoft.co.kr | www.archisoft.co.kr

Archicad와 AI의 만남

AI 비주얼라이저

스테이블 디퓨전 (Stable Diffusion) 기반

컨셉 모델	텍스트 프롬프트	AI 생성 이미지	새 프롬프트: 목재	새 프롬프트: 벽돌
	Prompt > modern concrete residential_			

AI 기술을 활용해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간단 컨셉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ARCHICAD 27 라이선스만 있으면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문의 02-6956-5298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주택건설 시 '건축·교통·경관 등'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법, 7월 17일 시행

건축사협회, 2022년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허가과정 건축심의 중복 문제 제기해 '통합심의' 성과 이끌어내



2022년 5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축·주택 심의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 모습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공급 시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주택 인허가 비용이 절감되고, 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또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주택 바닥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높이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을 1월 16일 개정·공포했다. 통합심의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건축심의회와 도시계획심의회,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회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하게 된다. 통합심의회가 임의규정이어서 지자체의 활용도가 낮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022년 5월 '건

축·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열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심의회가 중복되고 불합리하게 이뤄져 유사 심의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한편, 설계의도 훼손을 막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를 포함 8개 정부부처가 건축 관련 심의 17개를 운영하며, 건축물 한 동을 짓는 데 많게는 40개에 달하는 심의를 받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통합심의 도입과 같은 과감한 개선이 이뤄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주택 안전·거주성을 제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토론회를 기점으로 주택법 개정안 국회 논의의 진전이 빨라지며 마침내 주택법 통합심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바닥을 일정

두께 이상으로 두껍게 지을 경우 건물 높이 제한을 그만큼 완화해 주게 된다. 늘어나는 두께만큼 분양 가구

수가 줄어드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장영호기자

▶ 개정 주택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시행일
사업계획 통합심의 (제18조 제2항 신설)	·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특성,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실시하도록 함	2024.7.17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제41조 제8항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제41조의2 제8항 신설)	·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함	2024.1.16
감리자의 업무 등	·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제44조 제1항 개정)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제7항 개정)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43조 제2항 신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단체, 주택사업자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자료=국토교통부

세계건축축제 WAF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싱가포르서 개최 준공·계획·인테리어 부문 등 4월 19일까지 접수



세계건축축제 2023 올해의 건축물로 선정된 중국 후이전 고등학교는 학교라는 공간을 캠퍼스와 공원의 복합체로 바꿔놓은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설계=Approach Design Studio/Zhejiang University of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Group / 사진=세계건축축제

세계건축축제(WAF, World Architecture Festival)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2008년부터 매해 열린 세계건축축제는 전 세계 건축사가 모여 전문 지식을 공유한다. 이 기간 동안 건축 컨퍼런스와 작품발표, 시상 등이 진행된다.

세계건축축제가 다른 시상식과 차별화된 점은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부문별 결선 진출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작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야 한다. 자신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심사위원, 청중과 토론이 가능해 향후 이 피드백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만 68개국 140명이 심사위원으로 합류했다.

세계건축축제는 준공(Completed Buildings), 계획(Future Projects), 인테리어, 조경 부문에서 다수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 중에서 올해의 건축물을 비롯해 계획, 인테리어, 조경 등 각 부문별로 한 작품을 뽑는다.

금년도 세계건축축제 출품 최종 마감일은 오는 4월 19일까지다.

◆ World Building of the Year 2023-후이전 고등학교

지난해 세계건축축제의 '올해의 건축물'은 중국 닝보시 장베이구에 위치한 후이전 고등학교(Huizhen High School)가 선정됐다. 학교 부문에 출품된 이 작품은 Approach Design Studio와 Zhejiang University of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Group이 공동으로 설계를 맡았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라는 공간을 캠퍼스와 공원의 복합체로 바꿔놓은 아이디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사들은 "공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간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백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했다"고 설계 의도를 밝혔다.

학교는 학습 공간, 야외 강당, 나무

가 들어선 통로 등으로 구성됐다. 눈여겨볼 특징은 학교 공용공간이 내·외부의 구분 없이 열려 있어 자연과 연결된 형태라는 점이다. 교실 또한 각 공간의 모서리에 위치해 이동을 위해 나무가 식재된 길과 경사로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 교실 사이의 최



건축사는 건물끼리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물결 모양으로 지붕을 형성해 옥상 공원 산책길을 만들어냈다. 설계=Approach Design Studio/Zhejiang University of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Group / 사진=세계건축축제

부문별 결선 진출자,
실시간 작품 주제로
발표·심사위원 토론 진행

2023 올해의 건축물
'중국 후이전 고등학교'...

새로운 교육 공간 모델 제시 평가



후이전 고등학교. 설계=Approach Design Studio/Zhejiang University of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 Group / 사진=세계건축축제

양으로 지붕을 형성해 옥상 공원 산책길을 만들어냈다. 녹지볼륨증대(Increase of green volume) 공법을 통해 공간이 녹지로 가득하게 보이는 입체적 효과를 연출했다.

세계건축축제 프로그램 디렉터 폴

핀치(Paul Finch)는 "학생들이 규범적 건축에 갇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공간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조아라 기자

단거리가 아니라 여유를 갖고 걸어야 하는 숲길을 의도한 것. 건축사는 건물끼리 자연스럽고 연속적인 물결 모

수상 그 후 ㉓

제28회 경기도건축상 은상 '문호 23'

북한강 너머 고래산 원경 겹치며 근사한 경치 뽐내는 곳
가족이 풍경 만끽하도록 자연 향해 열린 'L'자 형태 아름다운 집
이병호 건축사 "서향 원경(고래산)과 북향의 근경(꽃대봉) 온전히 담으려 해"

해마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 중 탁월한 작품을 선정해 건축상을 수여한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가 다 건축문화를 선도했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서른세 번째 작품은 제28회 경기도건축상 은상 '문호23'(설계=이병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오롯)이다.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분 은상 수상작 '문호 23'
설계=이병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오롯 / 사진=Joel Moritz

"10년을 경영하여 초려(草廬) 삼간 지어내어 /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내어두고 /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조선 전기 대표적 문필가이자 강호 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 면앙 송순 선생의 시조 '십 년을 경영하여'다.
학창 시절, 이 시조를 처음 보고 종장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보고 보리라'는 구절이 이해가 안 갔던 기억이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강산을 둘러보고 볼 수 있는 집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었던 까닭이다. 집 주

변에는 되도록 커다랗고 멋진 건축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은 다른 곳보다 빠르게 개발된 동네에 지어진 초현대식 건축물에 산다는 이야기를 의미했다.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다.
30년도 더 지난 지금 다시 본 이 시조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보는 사람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시대가 달라졌다. '집'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진 것이다. 이제 '강산을 둘러보고 보는' 집을 좋은 집으로 생각하

이병호 건축사와의 일문일답



이병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오롯)

Q. 이 건축물을 설계하시게 된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뒀던 점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땅의 상황을 읽고, 올바르게 해석하고자 노력합니다. 특히, 전원 속 집을 계획할 때는 주변의 소음과 시선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방에 면한 서로 다른 경계와 어떻게 만나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합니다.

Q. 염두에 뒀던 점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었는지요?

남쪽 대지가 높아 우리 땅을 내려다보는 형국이었고, 동쪽으로는 마을 내 진입도로가 있었기에 대지 동남쪽 경계에 기대어 'L'자 흡집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로의 소음과 옆 대지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요하고 편안한 집의 마당을 만들 수 있었고, 서향의 원경(고래산)과 북향의 근경(꽃대봉)을 온전히 집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Q. 설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주택에서 남향 설계가 자연스러운 법인데, 이를 벗어나는 제안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주어진 땅의 조건과 조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던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Q. 건축사님께서 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진 건축적 지향점이 있다면?

사무소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소 이름 '오롯'은 "모자람 없이 온전히"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부족함도 과함도 없는 온전한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Q. 그 지향점을 이 작품에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인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위해 형태와 공간들에 균형감을 주려 노력하였고, 비교적 성과를 얻었다고 느낍니다.

Q. 이번 경기도 건축문화상 수상이 건축사님에게 어떤 의미인지요?

건축주와 시공사, 오롯에게 귀한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Q. 근래 들어 관심을 두고 있거나 설계에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동, 서, 남, 북 모든 향에는 각각 다른 매력의 빛과 바람, 그늘이 있습니다. 이들 매력을 충분히 담은 나지막한 단층집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는 이가 많아졌다.
제28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사용승인부분 은상 수상작 '문호 23'(설계 이병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오롯)은 이렇게 변화한 '좋은 집' 기준에 맞는 집이다.
이 건축사가 처음 대지를 만난 건 지난 2020년 6월이다. 북한강 변, 평온한 풍경에 취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도착한 대지는 너무 근사한 풍경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이 건축사는 전한다. 멀리 강변 너머 고래산(高峽山)의 원경과 북쪽 방향 꽃대봉이 자

아내는 단아한 근경의 조화가 특히 좋았다고 한다. 꽃대봉은 그리 높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은 산이었고 대지와와의 거리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아 안정감을 만들었다.
1층은 송순 선생 시조 중 달과 청풍이 쓰는 칸 같은 곳이다. 공용 공간인 거실과 손님을 맞는 공용공간, 그리고 뒷마루가 딸린 사랑방이 배치됐다. 사랑방은 다실(茶室) 겸 손님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2층에는 '나 한 칸'에 해당하는 공간이

다. 침실과 욕실 등 사적 공간이 있는 곳이다. 열려있으면서 닫혀 있는 묘한 조화를 이룬다. 옛 문인(文人)이 머물렀어도 시상이 절로 떠올랐을 것 같은 아름다운 형상의 집이다.
이 건축사는 "공적 공간인 1층과 사적 공간인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재료와 형태를 구분해 오브제처럼 디자인했다. 이것으로 사용자가 성격이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는 전이(轉移)의 과정을 즐기길 바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정필 기자

REPORT-충북연구원

빈 점포 등 도심 내 민간 유휴공간 활용 지원 방안은?

원도심 쇠퇴·저출산 고령화·낙후된 인프라·지방 민간 유휴공간 늘어나
빈집·공공 소유에 초점 맞춰진 정책 방향 민간까지 확대 필요성 대두
공공-민간 성격 결합한 공기업 형태 '유휴공간 관리 회사' 필요 제안



유휴공간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하기 쉽다. 지역경관을 훼손해 지역 부동산 임대시장의 침체 등 지역 쇠퇴를 촉진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사진=뉴스1

빈집, 빈 점포로 대표되는 도심 내 유휴공간이 하나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도심 쇠퇴, 저출산 고령화,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지방의 유휴공간이 점차적으로 늘

어나는 추세다. 유휴공간은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우범지대로 전락하기 쉽다. 지역 경관을 훼손해 마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지역 부동산 임대시장의 침체 등 지역 쇠퇴를 촉진시킨다.
지금까지 도심 내 유휴공간에 관한 활용 방안은 주로 빈집 또는 공공 소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공공자금이 투입될 경우 공공목적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모든 유휴공간을 매입하기도 어렵다.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과도한 매입비용과 지속적인 운영비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공공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방안이

아닌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졌다. 충북연구원은 이를 주제로 '원도심 유휴공간의 민간 활용 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보다 앞서 도심 내 유휴공간 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례에 집중한다. 일본은 앵커 상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기타큐수의 우오마찌는 관민 협동으로 '야모리 회사'를 출범시켰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략적 도시정책인 '고쿠라 야모리 구상 2011'을 토대로 지역대학교수 2인, 지역 출신 건축사 1인, 지역 기반 경영인 1인이 공동출자해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리노베이션 비즈니스 개발과 시행주체인 민간 야모리 회사를 통해 공적 역할과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 가치 향

상을 위해 프로젝트를 비즈니스로 실천하고 이익을 지역에 환원한다.
국내도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결합한 공기업 형태의 유휴공간 관리 회사가 늘어나는 민간 유휴공간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유휴공간 관리회사란 유휴공간을 직접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공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이 출자하는 방식을 가지면서,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지역 내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조치를 제안한다. 민간에서만 주도할 경우 주변 인프라에 대한 정비가 불가능해 외부 방문객의 불편함이 크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해 지역의 매매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무엇보다 유휴공간의 활용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연쇄효과를 발휘해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초

기 단계의 집중적 투자와 지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보고서는 유휴공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한다. 빈집에 국한된 법의 범위를 빈 점포 등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시군별로 빈 점포나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상세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권한다. 이를 토대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다.
연구진은 "유휴공간 특화 전문 공기업은 지역을 되살리는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상생과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SPC 등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조아라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추천건축자재
KIRA 2023.5~2026.4

세계최고의 품질 흙100% 친환경 황토벽돌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 ㈜건축사사무소 인터커드



세영대학교 동산병원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하모니홀 / ㈜건축사사무소 매스터디스



3/1(양산)빌딩 / 소수건축사사무소



윤습하다 / 건축사사무소 에스아이



전주교 대전교교당 / 예안건축사사무소



네이처빌딩 / ㈜다우중인건축사사무소



이앤교육 사옥 / 유와이즈 건축사사무소



하우스 원 / 윤성길 건축사사무소



본 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99
공 장 : 경북 예천군 풍양면 상풍로 1368-50

대표번호 : 1599-9989
T. (054)655-0678

www.ebrick.co.kr
sh@ebrick.co.kr

해외건축 NOW

2024년 기대를 모으는 건축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건축매체인 아키텔리(ArchDaily)가 2024년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건축분야의 발전과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건축물을 소개한다.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 복원, 무세오 에이지오 등 14개 프로젝트
사진=아키텔리(ArchDaily)

◆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 복원**
(Notre-Dame de Paris Cathedral Restoration)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이 2024년 12월 재개관한다. 2019년 화재로 인해 대성당은 지붕이 휩쓸려 19세기 첨탑이 붕괴되고 석조 금고가 훼손됐다. 화재 이후 빠르게 복원 작업이 진행돼 최근 석조물 내부 청소가 완료됐다. 재건축 된 첨탑도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 **무세오 에이지오(Museo Egizio)**
1824년에 토리노에 설립된 고대 이집트 문화 박물관인 무세오 에이지오(Museo Egizio)가 2024년 공개된다. 설계공모를 통해 증축 디자인을 선정한 박물관 측은 새로 공개될 공간이 학문적 목적이자 활력을 불어넣는 곳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MA/David Gianotten과 Andreas Karavanas가

설계를 맡았다.
◆ **2024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Paris 2024 Olympic and Paralympic Village)**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선수촌도 기대되는 공간으로 꼽힌다. 11만9,000㎡에 달하는 면적에서 선수촌은 올림픽 이후 파리의 영구적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선수촌의 마스터플랜과 비전은 도미니크 페로 사(Dominique Perrault Architecture)에서 맡았다.

◆ **차이나 필하모닉 콘서트홀**
(China Philharmonic Concert Hall in Beijing)
차이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규 공연이 진행될 콘서트홀이 베이징에 개관한다. 2만6,000㎡의 면적의 공간에 조성될 콘서트홀은 향후

중국 클래식 음악과 문화교류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MAD Architects가 설계를 맡았다.

◆ **초아르베마타(Çoarvemátta)**
노르웨이 북부 카이트케이코(Kautokeino) 지역에 문화 교육 시설이 내년 문을 연다. 북유럽 소수 민족 공동체이자 유목민족인 사미(Sápmi) 족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기관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초아르베마타는 사미국립극장, 고등학교, 순록축산학교 등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Snøhetta사와 70° N arkitektur 사 등 노르웨이 건축사들이 설계를 맡았다.

◆ **포플러스 호텔(Populus Hotel)**
미국 최초의 탄소 양성 호텔이 문을 연다. 콜로라도 주 덴버에 개장할 포플러스 호텔은 탄소 격리 방법을 건축에 적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설계를 맡은 Studio Gang은 지역 농업 및 산림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이 사용될 동안 가능한 한 최대치의 탄소 격리를 위한 방안 모색을 이어가고 있다.

◆ **그리니치(Greenwich)**
맨하튼에 88층 높이의 초고층 건물인 그리니치가 2024년 완공된다. 가늘고 높은 구조물은 노출 콘크리트 기둥과 곡선형 유리 외관을 통합해 독특한 건축 및 구조적 접근 방식을 강조했다. Rafael Viñoly가 설계를 진행했다.

◆ **니우포르트 그랜드 호텔**
(Nieuwpoort Grand Hotel) 복원

벨기에 니우포르트의 랜드마크인 그랜드 호텔이 주거공간으로 복원된다.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에 초점을 맞추면서 확장성 있는 건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뒀다. 2019년부터 시작된 호텔 복원은 David Chipperfield가 맡았다.

◆ **시안 쇼핑 지구(Shopping district in Xi'an)**
중국 시안의 도자기 유산을 기념하기 위한 새로운 쇼핑지구가 2024년 내로 완공된다. 11만1,000㎡에 달하는 이 공간은 사무실, 아파트, 호텔, 녹지 및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등을 아우른다. Heatherwick Studio가 설계를 진행했다.

◆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
(The Grand Egyptian Museum)
2002년 디자인 공모전 이후 몇 차례 지연을 겪은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이 2024년 늦봄 개관할 예정이다. 그랜드 이집트 박물관은 하나의 문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기대를 모은다. Heneghan Peng이 설계를 맡았다.

◆ **자이드 국립 박물관(The Zayed National Museum)**
아랍에미리트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자이드 국립 박물관이 사디아트 섬에 개관한다. 현대적인 효율성과 전통적인 아랍 문화권의 디자인을 결합한 설계가 인상적이다.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Sheikh Zayed bin Sultan Al Nahyan)을 기리기 위

해 설계된 만큼 그의 삶의 연대기를 반영한 조경도 조성될 예정이다. Foster+Partners가 설계를 진행했다.

◆ **나미 뭄바이 국제공항(NMIA)**
인도 최대 도시의 중요 인프라인 나미 뭄바이 국제공항이 2024년 12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차트라파티 시바지 국제공항의 수용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터미널 건물, 항공 교통 관제탑 및 연결 교통수단 등이 설계됐다. 설계는 Zaha Hadid Architects가 맡았다.

◆ **퀸즐랜드 공연 예술센터**
(The Queensland Performing Arts Centre)
1,500석 규모의 다용도 공연장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QPAC가 2024년 문을 연다. 센터는 브리즈번 중심부에 역동적이고 다양한 문화 공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Snøhetta가 파트너사인 Blight Rayner와 함께 설계를 맡았다.

◆ **히다 다카야마 대학교(The Hida Takayama University)**
히다 다카야마 대학교가 2024년 개교한다. 일본의 고산지역인 기후현 북부 히다다카야마는 에도시대의 역사적 건축물과 전통 문화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대학교 건물은 이 지역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 형태의 지붕 구조가 특징이다. Sou Fujimoto Architects가 설계를 진행했다.
조아라 기자

자재 & 테크 프리즘

국제방수케미칼, 미끄럼 방지기능 방수제로 안전사고 방지 '탁월'

친환경성 향상시키고 특허와 녹색기술인증 등으로 기술력 확보



국제방수케미칼이 개발한 미끄럼 방지기능을 가진 폴리그린 방수제

건축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방수제다. 내외부 벽, 건축물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시스템 중 하나가 방수제다. 내외부 벽, 테라스나 발코니, 그리고 주차장 등 건물의 용도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마감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방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

지 않는다면 방수 결함에서 파생되어 초기 건설 비용의 최대 80%가량이 보수 비용으로 투입될 수 있다. 철근의 부식, 구조 결함 유발, 합선, 감전 위험 증가, 마감재 박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친환경 방수제 제조기업인 국제방수케미칼에서 주차장·건물의 옥상·지하, 친환경이 필요한 정수장·급수장 등에 사용 가능한 유무기 복합 방수제를 선보였다. 특허를 획득한 기술을 적용, 방수 시공만으로 미끄럼 방지층이 형성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다. 특히, 해당 제품은 공인기관의 시험 결과 미끄럼 저항성이 일반 도로의 기준보다 높아 신뢰성이 높다.

지금까지 주차장에서 미끄러움 등이 원인이 되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기술 적용으로 미

- 특허 획득 기술 적용한
- 미끄럼 방지 기능 방수제
- 공인시험 결과 일반 도로 기준보다
- 미끄럼 저항성 높아

끄럼이 방지돼 접촉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방수케미칼 관계자는 “부착성

이 향상된 유무기 복합 방수제(폴리그린 E)는 조달우수제품지정, 녹색기술인증, 환경표지인증, KS인증, 위생안전기준 등을 모두 획득했다”며 “방수시공 시 특허 기술이 적용된 분사기구를 사용해 분사시 강한 공기압력

을 제공하면 미끄럼 방지층이 형성되는 구조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폴리그린 E시리즈는 5·10·16·18·20킬로그램의 규격을 가진 5종의 제품으로 구성된다. 박관희 기자

아키엠

건축사필수앱

No.1 디지털 감리 프로세스

전국 3,000

건축사 사용중 !!

구독상담 02 3462 1336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1년 유예...2025년 시행 예정

정부, 경제여건 불확실성 부담 완화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 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 조건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전제 조건
1등급	100% 이상인 건축물	① 에너지 효율등급 1++ 등급 이상 ②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전자식원격검침계량기 설치
2등급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3등급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4등급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5등급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자료=국토교통부

당초 올해부터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가 1년간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월 4일 경제정책 방

향을 발표하면서 한시 규제 유예 방안을 내놨다. 내용에는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 유예가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2025년 시행된다.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이 1년간 유예되는 것이다. 경제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따른 건설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이 8년 만에 재도입된 결과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등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하기 위해 'ZEB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ZEB 의무화 로드맵'을 통해 향후 25

년 내에 모든 건축물이 탄소중립 상태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ZEB 인증제는 5등급(최저)에서 1등급(최고)까지 5개 등급이 존재한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부여되며,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 대비 소비량을 평가한다. 인증 도입 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0건에서 2022년 1,262건으로 약 120배 증가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에는 민간 공동주택 30세대 이상(5등급 수준)에 의무화 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ZEB 인증제 의무화가 건축 단가를 높여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

기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PF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물 에너지인증제'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하고, ZEB 인증 필요등급 상향 대상(용도·규모)은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관희 기자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무이자 용자 지원

건물 최대 20억 원, 주택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금액 80~100% 지원



개보수 전

저탄소건물 전환 현황



개보수 후

서울시가 노후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비를 무이자 용자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80억 원 증액된 300억 원이다.

서울시는 2024년 건물에너지효율화 용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은 고효율 자재(창호, 단열재, 조명) 교체 등을 통해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

하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온실가스의 70%가 건물분야에서 배출되고 있다. 신축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은 노후건물이 서울 시내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준공 30년 이상 54.32%)을 차지하는 만큼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서

▶ 용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 범위	용자 조건	지원 금액	지원 한도
건물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단열, 고기밀성 단열문, 단열재 등) 2. 기계부문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3. 전기 등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등) 4.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진단비 등)	▶금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3년 거치 가능)	공사금액의 80~100%	▶최대 20억 원 (ZEB 인증 시 30억 원까지)
주택	1. 건축 부문 (단열창호, 단열단열, 고기밀성 단열문, 단열재 등) 2. 전기 부문 (LED 조명으로 교체 등) 3. 신재생에너지 등 (건물에 적용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진단비 등)	▶금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	공사금액의 80~100%	▶최대 6천만 원 (공동 3천만 원, 단독 6천만 원)

자료=서울특별시

울소재 민간 건축물이며,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용자를 지원한다. 용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https://brpseoul.go.kr>)을 통해 신

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용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하고,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용자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지원

시스템(<https://brpseoul.go.kr>) 공지 사항이나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1193)로 문의하면 된다.

박관희 기자

독자 한마당



장우진 건축사
더블유제이건축사사무소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단일 권으로 기술과 정보의 발달로 가능해졌다. 이제는 실상과 가상이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건축 또한,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거리적, 장소적 제한이 사라져 가는 이즈음에 수많은 건축사 또한 지역과 장소, 시간을 뛰어넘어 그 영역을 지구촌 곳곳에 두고 있다. 세계

적으로 유명한 건축사들의 작품을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기회다. 작품의 의도와 건축사의 철학을 국내에서 직접 바라보며 공간을 감상할 기회인 것이다. 외국의 우수한 건축사의 작품이 국내에도 존재한다는 사실로 외국 관광객과 건축학도가 국내 건축물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며, 국내 건축문화와 건축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다.

문화는 돌고 돌면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고유한 지역의 가치를 발전시켜 왔다. 외국건축사들의 작품이 국내에도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기능의 측면도 있지만 이는 국내 건축산업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외국 건축사 명성에 기댄 '문화 사대주의' 버려야

외국 건축사 건축디자인 독식

국내 건축사

기회조차 얻지 못해

건축산업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

국내 유망 건축사,

해외서 실력 드러내도록

지원해야

없다. 국내 건축사를 배제하고 유명 외국 문화를 숭배하는 문화사대주의의 바탕 위에 한국의 공간과 건축사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결론은 한국의 건축사가 유명해져야 한다. 소수만이 인정받고 다수가 그 밑바탕에 존재하는 것은 역사 이래로 계속됐다. 모든 기관과 건축사들은 한국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돌아보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협회에서 국내와 국외로 공모 소식을 공지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더 많은 국내의 유망한 건축사들이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 실력을 드러낼 것이다. 국가의 경계가 사라진 시대이다. 시선을 국내에서 세계로 돌려 영역이 넓어지는 건축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국제지명설계공모에 초청된 외국 스타 건축사들의 작품은 각양각색이다. 여러 가지 안을 보면서 대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일반설계공모와 달리 초청 건축사들은 초청비를 두둑하게 받고 업무에 임한다. 공모방식을 다양화하면 어떨까? 소규모건축사사무소가 준비하고 매년 건축사는 쏟아지며, 사무소 개소 또한 많다. 신진건축사 공모가 있기는 하지만 개소 초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게 개소 연수를 제한하는 공모, 소규모 사무실 보호 차원에서 일부 설계공모에 인원 제한을 두는 공모, 무작위 추천을 통한 신진건축사 지정공모 등이 반영되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제도권안에 들어오게 길을 열어주는 건축적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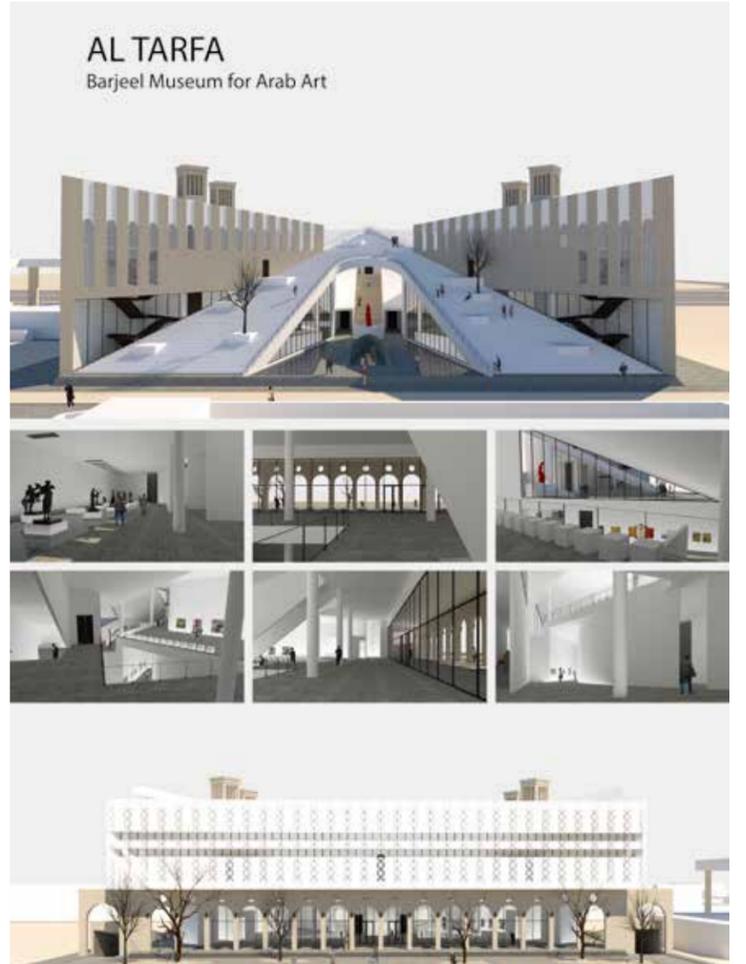
I AM KIRA 신입 회원에게 듣는다 - 김원찬 건축사(대구광역시건축사회)

“지역 대표하고 시대·문화 담는 공간 만드는 건축사로 성장하고자”

신진건축사들은 꿈이자 목표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회 가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졸업, 실무수련, 수험생 생활, 그리고 창업까지 모두가 쉽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고,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신입회원에게 듣는다’는 긴 노력의 시간 끝에, 사무소 개소에 성공한 건축사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삶의 에피소드와 더불어 창업기 등 동료이자 선후배가 될 이들을 조명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업계, 소속감과 연대의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편집자주>



김원찬 건축사 사진=김원찬 건축사



설계-사진=김원찬 건축사

한국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지역을 넘어 인정받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김원찬 건축사. 타 전공으로 사회생활 후 뒤늦게 건축사 자격을 취득, 막 개소 1년여를 맞은 그가 그리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건축사사무소 개소 소감과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건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실무 수련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최대한 빠르게 건축사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자격시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의 일이 걱정됐습니다. 방향성이 그려지지 않아 어영부영 반 년 가량 예전처럼 생활하다 안 되겠다 싶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보다 생소한 행정 처리에 미숙해 스트레스를 받았습지만 좋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경험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개소한 지 1년여라 쌓아놓은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지만 꾸준히 도전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Q 건축사로서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 의무가입 이후 건축사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전공하던 공부를 그만 두고 건축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유명한 건축물도 아름다웠지만 발 딛는 곳마다 골목길, 동네 구석구석까지 그 지역만의 특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사는 거리를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지역성은 전후 빠르게 사라졌고, 선진국이 된 지금은 더욱 더 그 추세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역성이 사라져 풍경만으로는 어느 동시의 어느 동네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건축사로서의 제 꿈은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특색 부여하기입니다. 저 혼자서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지역 특색이라는 것은 많은 건축사들과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권익을 위한 협회도 좋지만 의무가입을 계기로 도시와 공간을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사로서의 본질을 더욱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Q 실제 업계에 몸담으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건축사 업무 시 불편사항 등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한다면?

업무적인 사항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 크게 불편하거나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별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요즘 소규모 관급 건물들이 주로 제 안공모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성 사라진 풍경에 아쉬움

건축사들과 교류하며

함께 지역 특색 만들어 가야

스페인 건축사 그룹 RCR처럼

지역서 인정받으며

프로젝트 진행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 이제 막 개소한 신진 건축사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설계난이도가 낮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적과 경력이란 벽으로 인해 신인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선·후배 등 동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있다면 스페인의 건축사 그룹인 RCR처럼 지역에서 인정받으며 널리 알려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건축시장을 보면 주요 프로젝트는

지역보다 수도권에서, 더 중요한 프로젝트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을 대표하고 시대와 문화를 담은 공간을 만드는 건축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건축사 선·후배들과 교류해 실력을 쌓아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건축사로서의 역량이 되고자 합니다. 건축 관련 법규는 강화되다 못해 비현실적인 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무는 점점 소극적이고 위축돼 가는 게 현실입니다. 건축사들과 교류하고 협업을 통해 도전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아라 기자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개정 배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방지, 안전사고 예방 목적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표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 그에 따른 도심재개발로 인해 해체공사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2월 말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매뉴얼)과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사례집)을 개정,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체계획서 작성 사례집 발간, 감리자 교육 확대 등 해체계획서 부실 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 여전히 해체계획서가 부실 작성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매뉴얼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성 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아 전면 개편했다. 건축물 주변조사 등 사전 준비단계부터, 장비 이동 계획과 가시시설물 설치 계획, 해체공법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으며,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 인접 건축물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 대책과 소음·진동 등 환경관리계획도 포함된다. 사례집도 해체계획서 작성 우수 사례와 관리원의 주요 검토 사례 등을 반영해 개정됐다.

관리원은 매뉴얼과 사례집을 각 지

자체에 책자로 배포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열람과 내려받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원 누리집(www.kalis.or.kr)

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누리집(www.kbmscor.kr)에 파일로 게시했다.

박관희 기자

휴막이(굴토공사)설계.지반조사.감리 상주 비상주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포함)

건축물내부확장공법 <특허공법-휴막이(C.I.P)가 영구 지하벽체를 대체하는 경제적인공법>

[주] 양광엔지니어링 . [주]선샤인이엔씨

토질및기초기술사.공학박사 오민열 HP 010-5271-1977

경기도 안양시 관악대로 404번길 9, 2층 T. 02-2293-6800, F. 02-2299-1881

e-mail : sunenc2299@chol.com / webhard id : sunenc pw : 1234

대법원, 신축 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신축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분명하게 정의돼

건축물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일은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사용승인 신청·소유권보존등기 마쳤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하지 않아

건축물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과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명확하게 밝히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근 나왔다. 2020년 부산고등법원의 원심에서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봤다.

1월 9일 대법원은 취득세경정거부 처분취소(사건번호 2020두49997)에 대한 판결선고(2023. 12.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소외회사(주택회사)는 2017년 3월 31일 신축 중이던 건축물(대상 건축물)에 대해 피고 A(지자체)에게 사용승인을 신

청했고, 동년 4월 17일 가압류등기 촉탁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같은 달 21일 원고 B(신탁사)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2달여가 지난 6월 26일 피고(지자체)는 이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했다.

원고(신탁사)는 피고(지자체)에게 대상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납부했다. 또 원고(신탁사)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지만 피고(지자체)는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건축물을 신축하

는 경우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소외회사라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관련 규정으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6조 제1호·제7조 제1항을 통해 취득물건의 소유자에 대해 밝히고,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제10조 제13항을 통해 취득시기에 대한 개념을 환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그리고 내용에 비춰 “건축물

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여 대법관(재판장 서경환 외 3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박관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PF부실 경영진에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F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주시기 바란다”며 “단기적인 이익목표에 연

연해 PF 예상손실을 느슨하게 인식하는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1월 2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 함께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부동산PF 리스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더해 이복현 원장은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요인

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관희 기자

AA아키텍그룹건축사사무소(주), 건축사업계 최초 BIM 국제표준 ‘ISO 19650-2’ 인증 취득

입찰부터 설계, 전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 ‘BIM 정보관리 능력,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프로젝트 참여자의 수행 역량’ 공식 인정받아



(왼쪽) AA아키텍그룹건축사사무소 한철욱 대표 건축사가 건축사업계 국내 최초로 받은 ISO 19650 인증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BSI KOREA 임성환 대표.

는 표준이다.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IM 레벨 2’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기준으로 BIM 국제표준 ISO19650-2를 취득한 국내 업체는 17개사다. 발주기관, 건설사 각각 2개사, 7개사가 인증을 취득했다. 현재 ISO19650을 국가기준으로 선정한 국

레벨 0부터 3까지 총 4단계가 있는데, 레벨 1이 2D 설계 후 이를 3D로 전환설계하는 수준이라면, 레벨 2는 처음부터 2D 도면을 배제하고 바로 3D로 설계하는 수준이다. 레벨 3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 생애주기 전체에 BIM을 적용하며, 여기에 AI·가상현실 등 IT 기술이 결합된 형태다.

AA아키텍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ISO 19650:2018, Part2인 AA아키텍그룹의 건축설계단계 수행절차(입찰부터 설계 전 과정)가 국제 수준의 BIM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인증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건축사사무소와의 협업을 통해 수준 높은 BIM 설계 절차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증 취득까지 더해져 주 경쟁력을 높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또 “ISO19650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자의 역량을 관리하기 위해 ‘사내 BIM 설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작년 9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자격 검증으로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격제도는 “AA아키텍그룹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오픈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AA아키텍그룹 한철욱 대표 건축사는 “2025년부터 모든 프로젝트 BIM 설계 적용을 목표로, BIM 설계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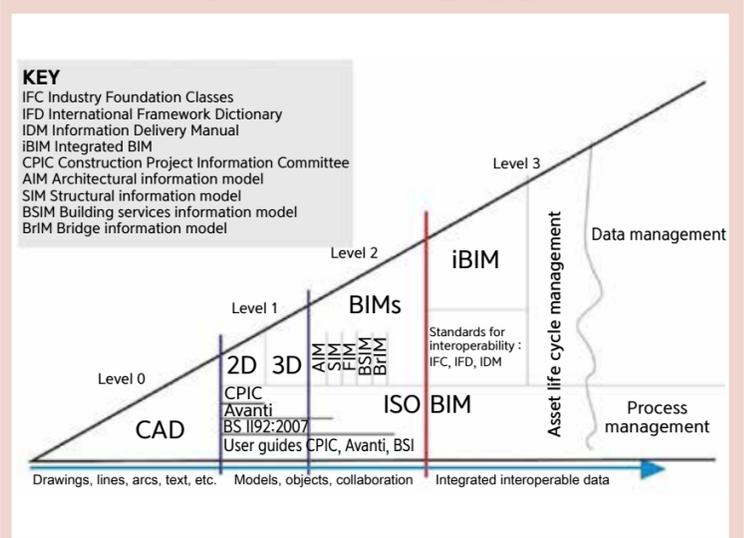
장영호 기자

▶ BIM 국제표준 ISO19650-2 인증을 취득한 국내 업체

연도	업체명	역할	
2020년	한국공항공사	발주처	
	태성에스엔아이	BIM	
2021년	삼성물산	건설사	
	현대건설	건설사	
2022년	KCIM	BIM	
	포스코엔씨	건설사	
	GS건설	건설사	
	한국도로공사	발주처	
2023년	한울씨엔비	BIM	
	DL이앤씨	건설사	
	대우건설	건설사	
	더부엔지니어링	BIM	
	국보디자인	인테리어사	
	SK에코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사	
	DL건설	건설사	
	라인테크시스템	BIM	
	2024년	AA아키텍그룹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자료=AA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주)

▶ Bimal Kumar “건설 프로젝트에서 BIM 채택을 위한 실용 가이드”



자료=AA아키텍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정부의 BIM(건축정보모델링) 도입 의무화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BIM 발주가 확산, 민간부문에서도 대형 건설사와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BIM 활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축사업계 최초로 BIM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 취득 사례가 나와 이목을 끈다.

AA아키텍그룹건축사사무소(주)는 건축설계업계 최초로 영국왕실표준협회가 운영하는 BIM 국제표준인 ‘ISO 19650:2018’ 인증을 취득했다고 1월 19일 밝혔다. ‘ISO 19650’은 BIM을 활용한 정보관리를 다루는 국제표준으로 입찰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글로벌 수준의 BIM 정보관리 능력, 표준화된 기술과 품질, 프로젝트 참여자의 수행역량 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

사내 BIM 설계 자격증 과정도

도입·운영

가는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 UAE가 있으며, 사우디의 ‘네움시티’ 입찰 조건의 필수 조건이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가 사업에서 BIM 인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BIM 국제 표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BIM 기술성숙도는 레벨 1에서 레벨 2로 넘어가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왕실표준협회가 정의한 BIM 단계별 성숙도 모델에 따르면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27기 수료식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2023년 12월 21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제27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총 29명에 대한 수료증 수여와 공로상, 우수상 등 시상 이 이뤄졌으며, 이후 글로벌건축최고위과정 총동문회 송년회가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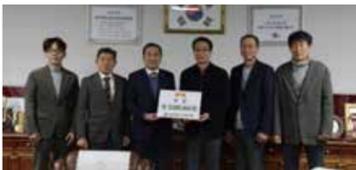
부산광역시건축사회, 2차 공사감리 의무교육 실시



부산광역시건축사회는 12월 7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건축사 실무교육(공사감리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교육은 지난 1차에 이어 의무로 진행된 만큼 487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당 교육은 건설현장 안전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감리 제도를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교육으로, 2024년부터 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2024년 3월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 현장의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1교시 부산시건축사회 강미숙 부회장의 '비상주 감리 업무 및 실무' 강의를 진행했고, 송세길 총무이사가 2교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 감리 실무'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아울러 최진태 회장이 직접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 현황 등 건축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대구광역시건축사회, 불우이웃돕기 연말 성금 전달



대구광역시건축사회는 2023년 11월 14일 (사)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를 시작으로 12월 26일 남산보호작업장, 대구하나센터, 범어3동 희망나눔위원회(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TBC 방송국 등 5개 단체에 성금 1,200만 원을 전달했다.

대구시건축사회 석한수 회장은 "연말과 새해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건축사회는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4 갑진년 시무식 및 장학금 전달식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1월 2일 광주시건축사회관 5층에서 회원 160여 명과 광주광역시 동구청 김선희 전문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갑진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시무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회원 상호간 신년 인사와 덕담, 임직원 인사 등 공사업무가이드라인 설명에 이어 전남대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송원대에서 추천받은 5명의 건축 관련학과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후 신년 떡 케이크 커팅식, 수첩 배부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1년 회장 취임 후 약 3년이 흘러 마지막 새해를 맞이했다. 남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회원들이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광주 동구청과 '건축공사 감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1월 2일 동구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광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건축공사 감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광주 동구청의 '주민 안전을 제1치로 하는 동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건축사와 감리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리자의 업무역량과 안전 관리능력 강화 등을 주제로 광주 동구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팀 김선희 전문관이 진행했다.

광주시건축사회 정인채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건축사회, 2024 신년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는 1월 15일 경기도건축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2024 경기도건축사회 신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양정식 회장을 비롯한 역대회장, 지역건축사회 회장단, 감사, 이사, 위원장, 경기도건축사협회 임원진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은 "올 1년은 지난 한 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다"며 "용이 힘차게 날아오르듯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여러 난관을 극복하며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 1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신경호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원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지역 건축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송성국 건축사, 황득중 시설과장, 이경열 시설운영담당 사무관 등도 참석했다.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원 3인, 충북교육감으로부터 감사장 수상



충청북도건축사회는 지난해 교육시설발전 유공자로 회원 3인이 선정돼 충청북도교육감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1월 5일 충청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유공자로 선정된 박상천(주. 이루안 건축사사무소), 김기욱(주. 에이디 건축사사무소), 강석진(지원 건축사사무소) 회원과 함께 충북건축사회 정운기 회장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경상남도건축사회, 2024년 시무식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는 지난 1월 2일 2024년 갑진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1월 6일에는 첫 일정으로 경남건축사회 추동호회에서 개최한 시축제와 등산동호회에서 개최한 시산제에 참여해 회원들과 함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내며, 새해 덕담과 인사를 나누었다.

오공환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회원들을 비롯한 집행부, 사무처 직원들의 노력으로 2023년 작년 한 해 여러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2024년 3월까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며 업무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광진-강남구지역건축사회, 건축문화제 성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동대문구지역건축사회가 어린이 건축 인재 양성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1월 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동대문 어린이 건축문화학교'를 열었다. 12월 19일부터는 스케치와 만들기 등 어린이 건축문화학교 교육 결과물도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광진구지역건축사회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회원 작품 전시, 광진 도시 사진전, 초청 강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광진건축+FESTIA'를 개최했다. '광진건축+FESTIA'는 광진구지역건축사회의 첫 번째 건축문화제다.

강남구지역건축사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미래도시의 중심 강남'이라는 주제로 건축문화제를 개최했다. 우수한 작품과 훌륭한 건축문화를 알리기 위해 작품 전시회를 열고 포스터 및 작품집 배포, 시상식 등도 진행했다.

종로구지역건축사회, 이웃사랑 봉사활동 진행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종로구지역건축사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종로구지역건축사회는 2023년 11월 29일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해 지역 홀몸어르신 가구에 도배, 장판, 등기구와 싱크대를 교체했다.

영등포구지역건축사회, 사랑의 급식 봉사활동 전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영등포구지역건축사회는 2023년 12월 12일 저녁, 영등포역 서쪽 광장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영등포구지역건축사회는 25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했다.

수원지역건축사회, 수원특례시에 장학금 500만 원 후원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건축사회는 1월 17일 수원특례시에 장학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장학기금 전달에는 수원지역건축사회 이재형 회장과 임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김종호 건축과장 등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재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개최된 수원도시건축문화제의 성과를 밝히며, 올해 열릴 수원도시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장학금 전달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향후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상주지역건축사회, 장학금 500만원 기탁



경상북도건축사회 상주지역건축사회가 지난 1월 9일 상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인재 육성과 상주 교육발전을 위해 상주시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상주지역건축사회 정용호 회장은 "지역 인재를 위해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상주교육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상주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장학금을 500만 원씩 기탁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해동건축사사무소 정용호 건축사가 2021년과 2022년 각 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바 있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 제22대·23대 회장 이·취임식



경상남도건축사회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12월 12일 내빈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23대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민수 회장은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50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건축사의 책임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dvertisement for Feature Flooring, highlighting high-quality, anti-slip, and fire-resistant flooring soluti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partner companies.

건축사공제조합 소식

“건축사에게 미래를 건축주에게 믿음을”

Tel 02-3473-0900 Fax 02-3473-0921 www.cafco.kr

조합, ‘다시, 도약!’ 슬로건 앞세워 2024년 시무식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이 2024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서울건축사신용협동조합과 합동으로 치러진 이날 시무식은 신우식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신우식 이사장의 인사말을 통해 조합의 작년 성과와 더불어 ‘다시,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새해 조합 운영 방침이 발표됐다.

신우식 이사장은 “지난해 조합은 자산 1000억 원을 돌파하며 큰 성과를 이루었다”며 이 외에도 “약 8%

지분 상승, 당기순이익의 50억 원을 상회했을 뿐 아니라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소액 증서 무

심사 자동발급, 증서 기재변경의 간소화 및 자동화, 보증 한도복원 등을 통해 조합원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새해 2030년 3000억 원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 나갈 것이며, 점유율을 60%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건축사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호 기자

자산 3000억 원, 점유율 60% 목표

임원(감사) 선거 공고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

3월 7일 오후 2시 정기총회 개최

건축사공제조합이 1월 5일 감사 선거(감사 1인)를 공고했다.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02-3473-0900), 조합 누리집(caf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호 기자

연금제도 기반 조성, ‘200좌 갖기 운동’에 참여해 주세요

조합이 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200좌 갖기 운동’을 현재 추진 중이다.

조합원은 200좌를 보유하기 위해 초기 투자금 3천만 원 중 80%(2,400만 원)까지 2%대 이자로 융자를 받

을 수 있다. 조합의 목표 수익률 연 5%를 가정할 경우 30년 후 조합원의 출자금은 약 3억 원에 달하게 된다. 이럴 경우 매월 약 200만 원씩 21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장영호 기자

“조합 가입을 환영합니다”

▶ 신규 가입

1	(주)키아해임건축사사무소	강현철	부산	19	희일건축사사무소	성자희	세종
2	건축사사무소에이+	최인규	경기	20	우이건축사사무소	추정엽	경기
3	(주)리움플랜건축사사무소	김영종	서울	21	행복한건축사사무소	이남수	대전
4	유엔이건축사사무소	김은미	광주	22	건축사사무소수	유수정	경기
5	(주)호영건축사사무소	노경호	경기	23	건축사사무소인오	김혜수	서울
6	(주)디블랜건축사사무소	정봉교	경기	24	CA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고남식	경기
7	(주)건축사사무소리우	이선미	서울	25	디자인집단본질건축사사무소	홍성오	서울
8	민틀레건축사사무소(주)	이종혁	서울	26	건축사사무소리부	이정혁	서울
9	자운건축사사무소	이승열	부산	27	성현건축사사무소	김근우	경남
10	이룸건축사사무소	조현수	부산	28	(주)에온건축사사무소	손수일	경남
11	MOIN건축사사무소	김종범	서울	29	에스케이피건축사사무소	이유태	인천
12	후소건축사사무소	손경근	서울	30	김보희건축사사무소	김보희	제주
13	빅건축사사무소	박유나	경기	31	미인건축사사무소	김윤상	서울
14	수평건축사사무소	권서영	울산	32	(주)이그종합건축사사무소	김홍철	서울
15	(주)범건축캐뎬건축사사무소	이상태	제주	33	세원건축사사무소	정종택	경남
16	(주)간인건축사사무소	신민수	울산	34	(주)건축사사무소원앤제너터	이석기	서울
17	건축사사무소정상	정상윤	경기	35	엘에스건축사사무소(주)	박승주	경기
18	장영호건축사사무소	장영호	서울				

‘200좌 갖기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증자

1	일신건축사사무소	강영섭	경기	14	(주)건축사사무소유피아엠	채순화	서울
2	(주)안리종합건축사사무소	강상익	서울	15	건축사사무소일오임	김현미	인천
3	건축사사무소래안	윤해정	서울	16	(주)에이원환경건축사사무소	박경배	인천
4	(주)산종합건축사사무소	신현성, 지준선	충남	17	(주)수기디자인건축사사무소	손숙희	부산
5	에온건축사사무소	황정복	경기	18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앤지	이길환	전북
6	참건축사사무소	전무연	경기	19	에원건축사사무소	최수미	경북
7	건축사사무소녹백	박장현	경기	20	아키투스종합건축사사무소	조동욱	인천
8	(주)이에스피건축사사무소	이주경	광주	21	(주)이누건축사사무소	이문우	경남
9	(주)내외종합건축사사무소	민중식	서울	22	(주)씨엠종합건축사사무소	김종호	경기
10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신영	정광영	충남	23	관백건축사사무소	관백순	충남
11	(유)건축사사무소창연	이효준	전북	24	수원민건축사사무소	경한수	서울
12	(주)케이엔피건축사사무소	김용석, 박종성	충북	25	(주)에스피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최기성	전남
13	(주)원경건축포럼건축사사무소	이중배	서울				

건축사 연금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200좌 갖기 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운영현황	(2023. 12. 31 기준)
조합원	11,714개사
출자좌수	582,744좌

▶ 12월 이사회



건축사공제조합 12월 이사회 전경

- 2024년 사업계획(안) 검토 : 주요사업 목표 조정 및 사업계획(안) 일부 수정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
- 직원 장기근속상 표창 및 부상 : 이사장에게 위임
- 2023년 기부금 집행 : 이사장에게 위임

▶ 이사장 동정

- 국토부 1차관과 면담 : 신우식 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의 손해배상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 국토부장관-산하단체장 신년인사회 참석 : 신우식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은 1월 11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산하단체장들이 새해 국가경제의 활력을 소망하고 멋진 재도약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각 분야의 건강발전을 화합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공제사고 사례

■ 설계 오류(설계기준 미확인)로 인한 추가 시공비 발생

사고내용
 • 설계 오류로 음압격리병실이 기준 면적에 미달되게 시공되었음
 * 관계법 위반 내용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으로 해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 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 기준 면적 확보를 위하여 일부 재시공

손해사정결과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미확인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면적이 15㎡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사고금액(손해액)	배상금 지급액
10,671,837원	10,402,346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의, 유일한 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의 자산이자 자부심입니다



손해배상 공제(보험)

건축주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

「건축사법」에 따른 의무발급 대상 가입 후 발급한도 제한 없이 즉시 이용

- 공제사고 발생시 구상 없음
- 소액증서 심사 없이 자동 발급

공제료의 10% 추가 납입으로 배상범위 확대 가능

- 특약으로 대위권 포기, 교차책임, 완공 후 하자담보, 공제료 분납 등이 있으며 **대위권 포기 특약을 체결하시면 건축이외에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적산, 토목 등의 업무까지도 추가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공 후 하자담보 1년 무상 제공

-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공제의 가입기간은 ‘착공일-완공일’이나, 조합은 **완공 후 하자담보 1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

이행(입찰-계약 하자), 지급(선금급) 등 건축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출자지분 최대 60배까지 보증서 발급 보증서 해제 → 한도복원

- 서울보증 대비 최대 5배 수수료 저렴
- 신청당일 신속 발급



융자

사업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

출자지분액의 80%내에서 융자가능

- 연이율 2% 저리 융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건축사공제조합 법률 및 노무 자문



법률자문

- 자문변호사 : 김덕희 변호사(법무법인 민)
- 연 락 처 : 02-6250-0103
- 자 문 시 간 : 매달 첫 번째-세 번째 수요일(오후 14:00~16:00)
- 자 문 범 위 : 조합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제반 이슈 등에 대한 법률상담

노무자문

- 자문노무사 : 금원환 노무사(노무법인 누리컨설팅)
- 연 락 처 : 010-4810-6518
- 자 문 시 간 : 매주 두 번째-네 번째 수요일(오전 9:30~11:30)
- 자 문 범 위 :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제반 노무관리 이슈 등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자문은 자문시간 내에만 가능하며, 자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목조건축 산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⑤ 매스팀버 건축물의 비용 및 설계 최적화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연구소의 내부 모습.
사진=경민산업.주

매스팀버 목조건축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도 갑진(甲辰)년을 맞아 대규모 목조건축이 푸른 용이 승천을 하듯 힘차게 태동하고 있다. 지상 5층(높이 19.1m)의 영주시 한그린 목조관이 최대 목조건축물이었으나, 조만간 목조 7층 건축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와 서울대학교의 해동첨단공학연구소의 하이브리드 구조의 고층 목조건축물이 그 주인공이다. 여기에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도 7층 목조건축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29년 개관 예정인 동대문구 서울시립도서관은 연면적 25,000㎡·야외마당 10,000㎡ 규모의 대규모 목조 하이브리드 공법의 시범 케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외에도 대형 목조건축 프로젝트들이 준비 중이어서 우리나라 건축계도 이제 본격적인 고층 대규모 목조건축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매스팀버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 발주처의 설계발주 방식과 설계공모의 적격심사 방식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목조 고층 건축물은 단위 비용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 따라서 매스팀버 시스템의 비용을 추정하는 비용과 수익률을 비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최근 WoodWorks는 설계의 최적화 체크리스트를 개발²⁾하고 매스팀버 건축을 완성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으로 기획업무(Pre-Design), 계획 설계(Schematic Design, SD) 및 디자인 개발(Design Development)로 도식화부터 설계 개발까지 구분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들은 매스팀버 건축이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건물보다 건설 일정이 짧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노출된 목재 구조의 독특한 심미성은 높은 입주율/임대율, 빠른 입주/임대, 그리고 입차인 회전율이 훨씬 낮으므로 잠재적 가치와 수익으로 시장의 차별성을 제공할 수 있다.³⁾

또 매스팀버 구조 골조의 가격을 철골/콘크리트 골조의 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정확한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매스팀버는 콘크리트 및 강철과 똑같이 고강도 등급으로 설계되지만, 목재이므로 하중은 콘크리트 건축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⁴⁾ 질량이 작으면 지진력에 잘 견딘다. 따라서 질량에 비례한 기초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설계의 적용은 지반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조기에 상위 등급 구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다른 유형의 구조물과 달리, 기획업무에 대한 전체론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계획 설계와 디자인 개발 설계 최적화를 위한 논의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갑진년 새해에는 고층 목조건축물의 대박을 함께 기대하고 싶다.

매스팀버 건축은

건설 일정 짧고

독특한 심미성 보유

콘크리트와 같은

고강도 등급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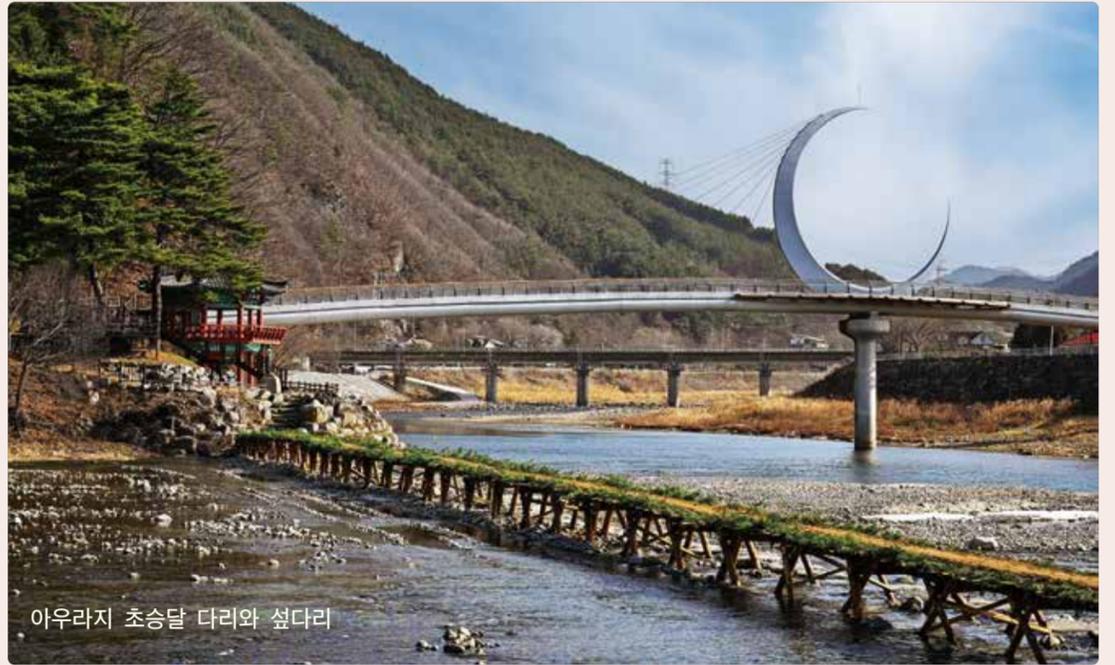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

질량 작아 지진력에 잘 견디

지역답사수첩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 아우라지



아우라지 초승달 다리와 설다리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인 정선아리랑 애정 편 가사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으로 아우라지가 있다. 한강의 발원지로 유명한 태백시에 있는 창죽동의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아우라지에서 한강의 본류인 골지천이 송천을 만나 비로소 '계곡물'이 아닌 '강'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이곳에서 송천과 합쳐진 골지천은 이후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오대천과 합류하면서 '조양강'이라는 이름을 얻고, 정선 읍내를 지난 후 동강으로 이름이 바뀐다. 그리고 영월읍에서 서강(평창강)을 만나 비로소 남한강이 된다.

'아우라지'는 두 강이 서로 만난다는 의미이다. 정선 아우라지는 여량면 북쪽에 있는 구절전에서 흐르는 송천과 남동쪽의 임계에서 흐르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이다. 정선군 사람들은 구절전을 양수(陽水), 골지천을 음수(陰水)라 여기고, 음수가 많아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 속설도 있다. 아우라지에는 정선아리랑과 함께 다양한 설화가 전해진다.

안타까운 사랑을 노래한 아라리

이곳은 주위에 노추산, 상원산, 옥갑산, 고양산, 반론산, 왕재산 등이 둘러싸여 땅이 비옥하고 물이 맑아서 예로부터 풍요로움과 풍류를 즐기던 문화의 고장이다. 오래전 남한강 상류인 아우라지에서 물길을 따라 목재를 한 양으로 운반하던 유명한 뗏목 터로 각지에서 모여든 뱃사공의 아리랑 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으로 정선아리랑의 가사 유래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뗏목과 행상을 위하여 객지로 떠난 님을 애달프게 기다리는 남녀의 애절한 마음을 적어 읊은 것이 지금의 정선아리랑 가사로 남아 널리 불리고 있다.

아우라지를 사이에 두고, 여량면 유천리와 여량면 여량이 나뉜다. 두 마을을 오고 가려면 다리가 없기에 뱃사공이 배를 건네주어야 다닐 수 있었다.

다양한 설화

1987년 아우라지 언덕에 정선아리랑을 기념하여 '아리랑비'와 함께 처녀의 님을 기다리는 '처녀 상'을 세웠다. 아우라지 부근은 한양으로 떠나던 뗏목이 출발하던 곳이다.



처녀상과 여송정

옛날, 아우라지에 사랑하는 남녀가 살고 있었다. 처녀는 유천리 양지마을에 살고, 총각은 여량리에 살았다. 이들 처녀와 총각은 유천리에 있는 '짜리골'로 동박(동백의 강원도 사투리)을 따러 다녔다. 동박을 따러 갔다 온 처녀와 총각은 다음날도 또 만나서 동박을 따러 가기로 하고, 총각은 배를 타고 여량리로 건너갔다.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아우라지 나무터로 갔는데, 전날 밤 내린 비 때문에 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총각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수 없는 마음을 노래로 지어 불렀다고 한다.

강물이 많은 어느 날, 총각은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갔다. 그런데 한양에 도착한 총각은 나무를 판 돈을 가지고 정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한양에서 모두 탕진했다. 그리고 한양 여자를 만나 고향에 두고 온 처녀에 대한 기억은 잊었다. 한편, 처녀는 매일같이 총각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총각이 돌아오지 않자, 그만 아우라지에 투신해 자결하였다고 한다.

여량면 여량리에서 초례(훈례)를 치른 처녀가 강을 건너 시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강을 건너기 위해 초례에 왔던 하객들과 친척들이 나룻배를 함께 탔다. 그런데 강을 건너던 나룻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혀 처녀는 물론 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아우라지에서는 해마다 두세 명씩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겼다. 그런데 처녀 상을 세운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졌다고 한다.

아우라지를 배경으로 한 설화는 정선아리랑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우라지 자체가 역사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 사고와 연계한 설화들도 보인다. 그리고 이들 설화에는 강을 두고 서로 그리워하는 총각과 처녀의 사랑이 담겨 있다. 송천은 큼직한 돌을 박은 징검다리, 골지천은 초승달 조형물을 얹은 다리로 건넌다. 두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여송정(소나무를 많이 베고도 아직 소나무가 많이 남았다는 뜻의 정자)과 아우라지를 그윽이 바라보는 처녀 동상이 자리한다. 처녀와 총각의 동상을 이어주는 아우라지 '달 다리'는 저녁에 켜지는 조명으로 아름답게 빛이 난다. 매년 8월 초에는 아우라지 뗏목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최근에는 길이 120미터, 폭 1.5미터 규모로 아우라지 갈금에서 처녀 동상 구간에 통나무 기둥에 소나무를 얹어 골격을 세우고, 솔가지와 흙을 덮어 전통방식으로 설다리를 설치했다.

출처 : 지역N문화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아우라지길 69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1) 엄철호, 2013. '제안공모방식'을 통한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 건축과 도시공간 Vol.10, 102-105.
2) <https://www.woodworks.org/resources/mass-timber-cost-and-design-optimization-checklists/>
3) Mass Timber Business Case Studies, WoodWorks, www.woodworks.org/resources/mass-timber-business-case-studies/
4) Wood Handbook, Chapter 4, Mechanical Properties of Wood, <https://www.fpl.fs.fed.us/documnts/fplgtr/fplgtr113/ch04.pdf>

건축의 무늬 만들기, 그리고 지키기

건축과 삶

김상현 건축사
김상현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문양은 조형미술에서 말하는 미적 표현의 3요소인 형태·색조·문양 가운데 하나로 장식의 목적으로 모든 물체의 겉에 나타나는 무늬를 말한다. 이러한 무늬는 인간의 욕구를 어떠한 형태로 외재화(externalization)한 것으로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이 상징화의 능력에 기초하면서, 모든 대상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건축 또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 인간의 삶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가치·기준·태도나 관점 등을 설계 과정을 통해 통합하고 외재화(externalization)한 결과라 할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건축의 무늬’라고 부르고자 한다.

건축은 삶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로 그려진 무늬이고, 음악은 인간이 선율로 그려내는 삶의 무늬이다. 건축사들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곧잘 비유하는데, 이는 건축사들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다양한 건축 관계자들 마음속의 삶의 무늬를 녹여내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건축의 무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무늬들이 축적될수록 그 건축은 깊어지고 감동의 울림은 커진다. 특히 건축사들이 지켜야 할 무늬는 ‘건축의 무늬’들은 클래식 음악처럼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학창시절 좋은 건축은 건축주·건축사·시공사 3자의 소통과 조화로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배웠다. 우리 건축사들은 서로의 무늬를 조화롭게 만들려는 소통과 노력을 통해 좋은 건축을 제시하고 존중받는 건축사로 거듭날 수 있다. 작년 10월 31일 ‘민간 대가 법제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학용 의원은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배경 설명 속에 숨은 복선은 무엇인가? 그동안 민간건축물의 설계·감리업 무에서는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 설계와 감리 및 안전 확보에 소홀하였던 것이 당연하였다는 말로 읽힐 수도 있겠다. 또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을 건축사들이 책임지겠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단순히 건축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민간 대가에 공공 대가를 적용한다는 것에 만족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건축이 예술로 승화되고 건축사들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힘있게 만들어낸 건축의 무늬를 함께 지켜내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좋은 건축의 무늬를 지켜야 하고, 지켜가려는 노력을 정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시로 보는 세상

동짓날

- 김지하

첫봄 잉태하는 동짓날 자시
거칠게 흩어지는 육신 속에서
샘물 소리 들려라
귀 기울여도
들리지 않는 샘물 소리 들려라
한 가지 희망에
팔만사천 가지 괴로움 걸고
지금도 밤이 되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날 뿐
아무것도 없고
샘물 흐르는 소리만
귀 기울여 귀 기울여 들려라

- 김지하 시집 '별밭을 우리르며' 중에서/ 술/ 1994년

동지는 양력 12월 22일이나 21에 든다. 이 시기가 음력 11월의 어디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동지는 다시 애동지, 중동지, 노동지로 나뉜다. 애동지는 음력 11월 10일이 채 못되어서 드는 동지로 이때는 팔죽을 안 먹고 팔떡을 빚는다. 중동지는 음력 11월 20전까지, 노동지는 그 이후에 드는 동지를 말한다.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로 옛적에는 이 날을 새해로 삼았다. 얼음장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듯이 이미 새 생명들이 움트고 있는 시기다.

(함성호·시인)

| 발언대 |



최고는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고은
(충청북도건축사회)

서 오는 차이로 인해 건축을 접근하고 풀어나가는 것에 회의감이 들곤 했다. 이곳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꿈꾸던 것들과 현실이 충돌되었을 때 오는 문제들이 건축을 힘들게 했다.

문제점 중 하나는 설계 대가이다. 일단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는 설계비에서 차이가 난다. 사실 건축이나 다른 일들이 인맥에 의한 영향을 다소 받지만,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한 사람만 건너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 인맥 위주로 수주가 이뤄지고 있다.

인맥에 의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정 설계비 책정이 애매한 상황이 생겨 버리기도 하고, 시장이 정해놓은 대가 기준이 공공연하게 자리 잡혀 있기도 하다. 물론 이마저도 과도한 경쟁 앞에서는 무의미해질 때가 많다.

이미 바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설계 대가와 그에 따른 공사비가 어찌 보면 건축의 질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설계비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일을 끝내야 하며 한 프로젝트당 몇 달을 고민해서 좋은 건축으로 만들어 갈 수 없다.

부족한 설계비는 설계 단계에서 고민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설계도서가 간략해지는 만큼 시공 시 필요한 정보량도 충분치 않게 만든다. 도면에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사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악순환들로 인해 건축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정 설계비와 설계 기간이 확보된다면 건축의 질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일들이 싫어 단독주택의 경우 한 프로젝트당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기간을 정해 프로젝트를 처리한다. 기간이 발생하는 만큼 도서의 양도 많아지고 그에 따른 상세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건축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 건축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상응한 적정대가를 받으려고 하지만 설명을 들은 건축주들

10명 중 9명은 그냥 가버린다. 계약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타 지역 사람들이었고, 설계 기간 동안 활발한 소통 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고 설계 대가가 수도권보다 저렴하다고 밝힌다. 분명 수도권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정작 이곳 지방 소도시에서는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일련의 상황들을 접하다 보니 괴리감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필자는 민간건축 대가기준이 마련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설계 대가가 공공발주 사업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따라가게 된다면 건축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들도 만족할 만한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민간건축 대가기준 마련이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민간건축 대가기준 마련 찬성

필자는 건축을 함에 있어 사무실 위치가 크게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로 개소하게 되었다. 지역의 로컬 아키텍트로서의 자부심과 개성을 만들어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가 지나면서 이상과 현실에

포토 에세이

봄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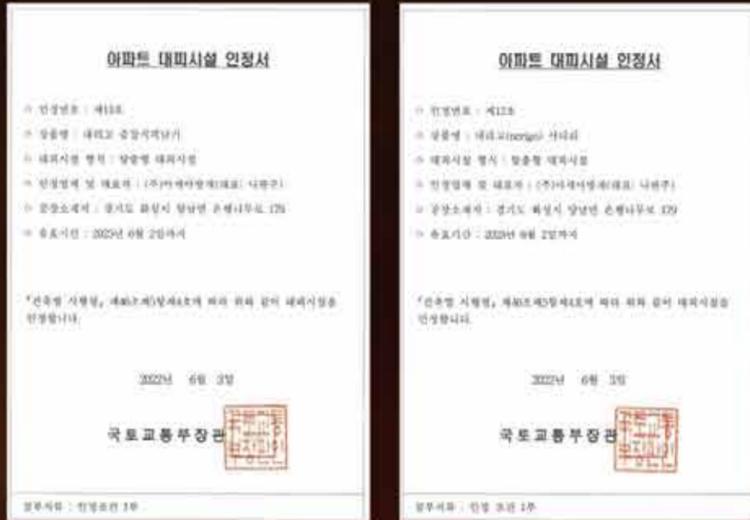
겨울이 지나갑니다. 차가운 겨울의 기운으로 시작하는 새해도 찬바람이 가셔가고 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겨울을 지내던 청설모가 사람의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지난겨울을 나기 위해 비축했던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이 다니는 걸음으로 내려와 먹이를 찾아 고개를 기웃거립니다. 작은 청설모도 움츠렸던 몸을 펴고 새로운 봄을 맞이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겨울은 언제 끝날지... 마음의 봄을 찾아 주변을 살펴봅니다.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 건축만평 ||

첨단기술의 리더 (주)아세아방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2회 한국소방산업대상
대통령상 수상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외부형 대피시설 "1 평" 효과



- ★ 바닥면적 제외 ★ 효율적 평면 디자인 가능
- 건축물 일체화시설 하자 NO! 비용 절감
- 빠르고 안전한 대피 주거환경 확보



(대표전화) T. 02-422-1191 F. 02-403-9090
 본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26길 33 신화빌딩 2층 (풍납동)
 공장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은행나무로 179
 기술연구소: 경기도 하남시 동남로438번길 22 (감일동)